



변혁의 물결이 넘치는

## (구) 소련

### (4)



### 배 순 덕

뜨겁던 태양이 희게 빛나던 오후였다. 오가는 사람도 별로없이 한산하기만한 거리 너머로 성 바실리 사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반 대제가 카잔 칸(汚)을 항복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든 바실리 사원은 양파모양의 돔을 가진 아름다운 외형이 햇살에 반사되어 더욱 매혹적으로 빛나 보였다.

너무 아름다운 사원의 모습에 반한 이반 대제가 다시는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설계자의 눈을 뽑아 버렸다는 아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 사원 앞에서 한가하게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붉은 광장에서 병사들의 교체식이 있을 시간이라고 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텔레비전에서 가끔씩 보아왔던 사회주의의 절도있는 행진 장면이 떠올랐다.

나도 모르게 묘한 흥분이 일었다.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또 한 손은 힘차게 흔들면서, 땅을 울리는 군화소리와 함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어질 교체식을 상상하며 녹색의 국방부 건물을 돌아서 부지런히 달려갔다.

힘찬 구령과 절제된 동작, 긴장된 표정으로 무장되어진 붉은 광장의 엄격한 교체식은 24시간 내내 한 시간 간격으로 되풀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갔을 때 광장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경계선 둘레로 몇겹씩 둘러 서있던 관광객들이 술렁대며 막 흩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식이 끝나 버린 것이다. 아쉬움을 뒤로 한채 크레믈린 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크레믈린은 모스크바의 상징이다.

오카강의 지류인 모스크바강을 따라 한 변이 약 700m이고, 높이가 9~20m, 두께 4~6m인 삼각형의 장대한 성벽이 크레믈린이고, 그 안의 남서쪽 언덕 위에 있는 궁전이 크레믈린 궁전이다.

10세기경 작고 보잘 것 없는 한촌으로부터

터 시작된 모스크바에 지금과 같은 크레믈린 성벽과 교회가 세워진 것은 15세기경으로,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가 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표트르 1세가 수도를 페테르스부르크(지금의 레닌그라드)로 옮기기 전까지는 크레믈린의 황금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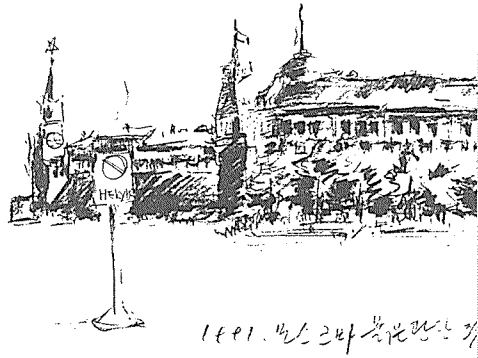
이반3세가 동로마제국 마지막 황제의 조카딸 ‘소피아 팔레오로그’와 혼인하여 비잔틴 황실과 인척관계를 맺은 것도 그때이고, ‘제3의 로마’로 불리운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그러나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모스크바 전 시내에 번진 대화재로 크레믈린은 소실되었다. 그 후 크레믈린 궁전이 개축되면서 다시 크레믈린 성벽이 부활되었고 성벽 위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20개의 망루는 그 무렵 쌓아진 것이다.

크레믈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위험물에 대비한 소지품 검사가 철저했다. 그것은 공산당 서기장이나 정부요인들의 집무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안내인이 설명해줬다. 카메라의 휴대는 허용이 되었으나 핸드백이나 가방은 안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지하 물품보관소에 맡기고 올라왔다.

그러나 출입구에 늘어 서 있는 관람객의 수는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별로 줄어 들지않고 계속 이어지기만 했다. ‘밀리치아’라는 민간경찰이 꼼꼼히 수색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었다.

성 안으로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크식 궁전병기고이다. 표트르대



▲ 붉은 광장.붉은광장(크라스나야 플로시차지)은 ‘크라스나야’라는 古語가 ‘아름답다’는 형용사였기 때문에 본래는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의미였다. 광장의 넓이는 73,000m<sup>2</sup>이다.

제 시대에 만들어진 병기고 앞마당에는 나폴레옹 군대에게서 빼앗은 875문의 고풍스런 대포가 전시되어 있다.

그 맞은 편에는 소련공산당 대회나 중앙위원회 총회등의 모임이 열린다는 흰색의 대회궁전이 있는데, 이 흰색의 대회궁전은 알루미늄과 유리, 대리석 등으로 만든 건물로 크레믈린 안에서는 가장 최근(1961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는 녹색의 둥근 지붕을 가진 소비에트연방 내각관이 있다. 연방 내각관은 레닌이 살았던 곳이다.

생전의 레닌은 내각관의 둥근 지붕 위에 노동자들의 승리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새겨진 붉은 깃발을 걸어 놓았고, 내각관 안에서의 생활도 비교적 검소했다고 한다.

그 밖에, 17세기의 응용미술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2사도 사원과, 모스크바에서 가장 높은(81m) 이반대제의 종루, 역대 황제들의 처소로 사용되었던 대(大)크레믈린 궁전과, 역대 귀족들의 시체안치소로 이용되었던 아르한겔레스키사원, 성모 승천사원,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종의 왕 등이 있다.

특히 18세기 주조기술의 장소를 집결하여 이반부자(父子)가 만들었다는 ‘종의 왕’은 높이가 6m에 무게가 이백톤이고 주조 중의 사고로 떨어져 나온 종 조각의 무게만도 무려 십일톤이나 된다고 하니 가히 세계 최대의 종의 왕이라 할만은 하다.

그러나 그 커다란 덩치에도 불구하고 제 소리를 잃어버린 종의 모습이 마치 위용을 잃어버린 이빨 빠진 호랑이와도 같아, 오늘날 국제정세 속의 소련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붉은 광장의 북동쪽에 있는 ‘곰’백화점 앞에서 저녁시간까지 각자 자유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행과 헤어졌다. 곰은 연록색의 3층짜리 건물로 소련 최대의 국립백화점이다.

제각기 흩어진 일행들은 대부분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그들과 함께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았다. 백화점의 매장은 우리나라처럼 여러 품목의 상품들이 폭넓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외곽 쪽으로 칸칸이 크고 작은 종류의 상점과 물건 진열장이 있었다. 진열된 상품은 많지 않았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했다. 몇

군데만 대충 기웃거리려 보다가 룸메이트인 시과 함께 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아트뱃거리로 달렸다.

맨 먼저, 전날에 눈여겨 두었던 아트뱃광장 근처의 서점으로 가서 이것 저것 책도 구입하고 구경도 했다. 그곳엔 특히 그림책과 사진책이 많았는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다. 그런데 서점에서 책을 한보파리 사들고 거리를 구경하다보니 어느 곳인가 길거리 좌판에서도 책을 놓고

▼성바실리 사원. 높이가 47m에 아홉개의 양파모양의 돔을 가진 바실리사원은 러시아 정교사원으로 지어진 것이며 박물관으로 개방되고 있다.



파는 곳이 있었다.

좌편의 책은 서점에서 보다 종류도 다양했고, 유럽에서 발간된 최신 간행의 미술책도 있었다. 그러나 가격은 정찰제의 국영서점보다 훨씬 비쌌다. 국영서점보다 비싸긴 했으나 흥정에 따라 곧잘 깎아주고고하고, 똑같은 책을 가지고도 사는 사람에 따라 제 멋대로 값을 올려 받기도 했다.

아트마켓거리의 끄트머리 썸에서 얼굴이 거스름한 한 미국인을 만났다. 우리와 같은 여행객이 아니고 소련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는데, 많이 궁핍해 보였다. 한손에는 가방을 들고 또 한손에는 야채와 빵 부스러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와 같은 방향이어서 동행을 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중에 헤어지게 되었을 때 일행인 스과 나는 서로 의논하여 주머니에 남아있는 루블을 모아서 그에게 주었다. 내일이면 우리도 출국을 해야 하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요긴할 것 같아서였다.

늦은 시간이라 서둘러야 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M으로 표시되어 있고 모두 아홉개의 노선이 있었다. 지하철역의 홈마다 진행방향으로 역이름이 있었지만,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할지 구분이 가지 않았다. 역무원과의 의사소통도 잘되지 않았다. 엉뚱한 곳을 가르쳐 주어 무거운 책을 들고 왔다갔다 하기를 몇번씩 반복하다가 겨우 목적지를 찾아 내릴 수 있었다.

다시 땅 위로 올라와 버스를 타고 흔들

거리며 종점에 도착하니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우리 뿐이었다.

멀리 어둠 속에서 호텔의 불빛이 바라다 보였다. 그 불빛을 등대삼아 숙소 현관에 당도하니 초조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던 B선생이 깜짝 반가워 한다.

낮선 땅, 우리와는 아직 비수교국인 공산국가에서 자정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아 많이 걱정했다며 호텔마당 끝쪽을 가리켰다. 초조해진 일행들이 그 곳에 모여앉아 우리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겁도 없이 활보하고 다닌다는 나무람보다는,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단장인 G교수의 말씀에 오히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가슴졸이며 기다려준 분들에게 마음으로만 감사할 뿐이었다.

내일 아침 폴란드로 가기 위한 짐을 꾸리며 낮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았다. 힘들고 고생스럽긴 했지만 예기치 않은 구경을 많이 했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의 풍경은 신선하고 흥미로운 것이 많았다. 속도가 빨라서 마치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에스컬레이터와 각기 다른 모자이크나 대형 벽화, 어느 역인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아치형의 둥근 공간 사이사이마다 웅장하게 놓여 있는 수십개의 청동조각상이 마치 지하 미술관과 같은 감동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날 저녁은 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

(필자=화가·호는 창링(滄浪))